“연탄불 꺼지면 큰 일… 집 나서기가 걱정돼요”

에너지빈곤층 겨울나기 현장탐방 ③광주 북구 신안동·중흥동 쪽방촌

연탄쿠폰 지원받아 생활
북풍한설 추위 ‘전전긍긍’
연탄공장 폐업 소식 걱정
“문 닫지 않기만을 바랄 뿐”

매서운 겨울바람에 흰 눈이 떡가루처럼 흩날린다. 삽시간에 추위가 온몸을 감싼다. 넓은 도로 옆에는 판넬로 덧대 지어진 비슷한 집들이 조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다.

최근 찾아간 광주 북구 신안동 주택가. 판넬로 지어진 집 외벽에는 연탄가스 자국을 가리려고 수십번씩 페인트칠을 한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수십년째 살고 있는 김양수(64)씨. 여느 따뜻하고 포근한 집과 달리 판넬집은 바람만 막아줄 뿐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김씨는 집에서도 입김을 불어가며 두꺼운 옷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자나 깨나 연탄 걱정뿐이라던 그는 이날도 연탄불이 꺼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혹시라도 꺼진다면 다시 되살리기까지 추위를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얘기를 하다 말고 일어선다. 연탄을 갈아야 한다며 뒤쪽 보일러실로 발길을 옮겼다. 말이 보일러실이지 집 밖 외벽으로 간신히 막아놓은 구조라 문을 닫아도 세찬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뒷방에서도 외풍이 들어와 연탄불을 지피는 동안 시린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김씨는 10여 년 전 연탄보일러로 바꿨다. 어릴 적 부모님이 연탄을 갈던 걸 보며 자랐던 그는 연탄 다루는 기술은 능숙했다. 자주 갈아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내할 만큼 그에겐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하루에 연탄 4장을 때면서 6시간마다 갈아준다. 방이 차가워지면 자다가도 일어나 뒷방 보일러실로 향한다. 밤낮 지키는 건 김씨의 몫이다. 이 동네에도 연탄 때는 주민이 9가구나 된다. 모두 연탄불을 지키기 때문인지 이들의 생활 반경은 좁다.

김씨는 광주시에서 주는 연탄쿠폰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는 54만6000원을 받아 연탄 600여 장을 샀다.

연탄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이기에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구매한다.

김씨는 봉사자가 줄고 광주에 한 곳뿐이던 남구 남선연탄 폐업 소식을 듣고 연탄 가격이 오를까 봐 노심초사했다. 그는 “창고에 쌓여 있던 연탄이 줄어들 때마다 연탄공장 생각부터 난다”며 “기름보일러는 엄두도 못 내고 연탄공장이 문을 닫지 않기만을 바란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광주 북구 중흥동 천모씨의 집 보일러실 한편에는 올 겨울 추위를 버티기 위해 준비된 연탄이 쌓여 있다.

광주 북구 신안동 김양수씨가 보일러실에서 연탄을 갈고 있다.

같은 날 북구 중흥동 주택가. 매캐한 연탄보일러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굴뚝 주변에 한눈에 봐도 녹슨 흔적이 보인다. 연탄을 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이곳에 살고 있는 천모(73)씨도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겨울을 나고 있다. 하루 3장을 때는 천씨는 아픈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연탄은 그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부담이 덜돼요.”

천씨는 하루 3번 연탄을 가는 불편함이 있지만 연탄 덕분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몇년 전부터 귀찮은 연탄 갈이, 연탄가스 중독 등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연탄 사용자들이 줄고 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연탄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씨와 천씨 역시 그들에게 연탄은 잠깐의 버팀목이 아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함께 해야 하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마치 안도현의 시 ‘연탄 한장-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처럼.

글·사진=정상아 인턴기자

광주 북구 검도부 감독·코치 감봉 징계 확정

광주 북구는 직장운동검도부 선수단 성비위·부실 운영 등과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감독·코치에 감봉 징계를 조처 했다고 18일 밝혔다.

북구는 이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검도부 선수단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감독에 감봉 2개월, 코치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5~7급 공무원 대우에 준하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인 검도부 코치·선수의 징계는 견책·감봉·해임 3단계로 나뉜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제안한 검도부 운영 이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그러나 시 체육회 등이 운영 이관에 난색을 표한 만큼, 북구가 계속 운영키로 결정됐다. 대신 내년 1월 열릴 운영위 회의에서 강도 높은 쇄신 대책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 내 남성 검도 유일 실업팀인 북구 검도부에서는 지난 8월 뒤늦게 선수 2명의 성폭력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중 주전급 선수 1명은 현역 선수로서 중대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이 선고, 현재 수감 중이다.

정성현 기자

전미용·고용임 북구의원 “광주역 셔틀열차 중지 대책 마련을”

주민편의·주변혼잡 고려 안돼
양동시장역 환승체계 등 요구

전미용·고영임 광주 북구의원은 18일 안평환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운행중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역은 광주 대중교통 요지로 시민의 교통수단 중 하나였다”며 “2016년부터 KTX가 광주역 미진입하면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환승 편의를 위해 광주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셔틀 열차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셔틀 열차 운행은 일일 30회를 왕복하면서 광주역 인근 주민 환승 체계의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광주시는 셔틀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번 결정은 주민편의와 이동 시간, 역주변 도로혼잡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장과 광주 북구청장에 광주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 완공 때까지 △양동시장역과 환승 체계 구축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간 셔틀버스 운행을 요구했다.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는 KTX의 광주역 미진입에 따른 고속열차의 환승편의를 위해 2016년 12월부터 운행했다.

168석 규모의 셔틀열차는 한때 이용객이 하루 평균 600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그 수가 점차 줄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주시가 매년 15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왔으나 1회 평균 탑승객이 20명에 불과해 고비용·저효율로 18일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정성현 기자